

<재수종합반 vs 독학재수학원 의 조언>

N수를 하게 되었다면, 저는 재수종합반과 독학재수학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해 보입니다. 재종반과 독학재수학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커리큘럼을 스스로 짜느냐 아니면 학원 과정을 따라가느냐 입니다. 솔직히 사람마다 취향이 있고 둘 다 장점이 있기에 제가 뭐가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공부시간은 8시부터 10시로 똑같지만 '자습시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자습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과 수업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하기에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저는 독학재수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최상위권과 상위권이라면 독학재수학원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재종반을 가도 어느 정도 점수는 오를 겁니다. 그러나 최상위권과 상위권분들은 자신이 약하고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재종반에 가서 아는 내용까지 배우며 아까운 시간 쓰는 것 보다, 자신에게 약한 과목의 공부시간을 더 높이고 모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독학재수학원을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가끔 자기관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독학재수학원을 꺼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N수를 결심한 이유와 의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상위권분들 중에서 스스로 커리큘럼 짜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재종반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결정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말은 '참고'만 해주시고 본인이 스스로 많은 생각 끝에 결정해 주세요. 만약 커리큘럼을 짜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제가 곧 올리게 될 공부법관련 칼럼을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하위권이라면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재종반, '자리에 오래는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독학재수학원을 추천해드립니다. 당연히 개인차는 존재합니다. 저는 재종반을 안다녀봐서 독학재수학원의 특징만 뒷부분에 적어두었습니다. 선택하실 때 읽고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위에서 조금 말씀드렸듯이 중하위권 분들은 재종반과 독학재수학원, 둘 다 매우 리스크가 큼니다. 솔직히 재종반을 다닌 사람과 독학재수학원을 다닌 사람 모두에게 물어보면, 1년을 공부했지만 수능 점수가 아주 조금 오르거나 거의 오르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는데, 중하위권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하위권에서 상위권의 도약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원에서 수업듣고 자습시간에 공부한다. 재종반가면 '누구나' 이렇게 짜여진 틀 속에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성적이 오른다면 재종반 모두가 성적이 올라야하고 sky 가야됩니다. 학원에서 수업듣고 자습시간에 공부하는 건 '평타'치는 겁니다. 재종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평균'은 한다는 겁니다.

중하위권 분들은 독학재수학원을 가시든, 재종반을 가시든 수업을 어떻게 들을까, 자습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어떤 공부법으로 공부할까를 고민하고 계속 바꿔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남들처럼 쉬는 시간에 쉬고 수업시간에 수업 듣고 자습시간에 숙제하면 공부한 것 같지만 그건 그냥 평타친 것뿐입니다.

'스스로' 고민해보세요.

매일저녁 반성해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바꿔보세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성공을 바랍니다.

<N수의 위기(?)>

1. 모의고사 점수에 흔들린다.

모의고사 점수에 흔들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았구요.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흔들립니다. 물론 모의고사 점수를 참고하여 약간의 커리큘럼의 변화는 줄 수는 있지만, 모의고사 점수가 안 좋다고 바로 더 좋은 인강과 교재를 찾아보거나 또 모의고사 성적으로 이곳저곳 모의지원을 하면서, 시간낭비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는 그냥 시험도 아니고 커리큘럼의 일부일 뿐입니다. 모의고사 보면서 시간관리 연습하고, 실전감각을 기르고, 틀린 문제를 고치면 그냥 끝난 겁니다. 바로 원래 공부하시던 대로 돌아가세요. 또, 잘 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하지만 모의고사까지 공부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꼭 그대로 공부하면서 계속 좋은 결과를 유지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돌아가세요.

2.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정보를 계속 찾아본다.

입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좋은 인강과 좋은 교재를 찾아보고, 인강 사이트에서 인강 비교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입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법을 찾아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N수를 시작하기 전, 커리큘럼을 짤 때 충분히 찾아보신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는 최소한의 수정을 하기위해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참고'만 하세요. 괜히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방법과 커리큘럼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3. 친구들이 보고 싶다.

N수를 하면서 친구를 한명도 안 만나는 사람을 보기도 했지만, 저는 무조건 만나지 말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만났거든요.. ㅎㅎ 물론 아예 안 보는 게 좋지만, 한 달에 3번 정도를 Max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은 그냥 공부 안하고 놀자는 겁니다.

4. 몸이 지친다.

N수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부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따라서 저는 재종반과 독학재수학원 모두 집에서 가까운 곳을 다니시는 걸 권해드리고, 먼 곳에 가야한다면 기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데 쓰기도 아까운 체력을 왔다갔다 이동하면서 낭비하는 게 아깝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면 몸이 썩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면 공부효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실천하세요. 전 아침저녁으로 학원을 통학 할 때 자전거를 탔습니다. 뭐든지 좋으니 하나라도 선택하시고 실행하세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12시 이전에 잠을 자세요. 제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11시에 자고, 12시에 자고, 1시에 자고 나서 그 다음날 공부한 다음, 저녁에 그날 한 양을 보면 확실히 늦게 잘수록 공부효율이 확확 떨어집니다.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아까운 시간을 버리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시 이전에 자세요.

12시 이전에 자세요.

그 다음날이 달라집니다.

